

現代의 危機와 哲學 ;

不安한 生을 營爲하는 分께 [제3회]

金基錫

現代의 危機는 現代가 歷史의 한 時期인데서 『歷史性』, 危機가 現實의 危機인데서 『現實性』을 가집니다. 그런데 現代의 危機는 일즉 다른 때의 危機에 있어서 보지 못한 『思想性』이란 것을 가졌습니다. 이 思想性이 말하자면 現代 危機의 한 個性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現代에 이르러 思想의 危機와 함께 危機의 思想이 論議되는 것이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같은 危機가 經驗되었다고 하더라도 危機 그 자신, 混亂 그 자신이 反省된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은 現代 危機의 自己省察 乃至 自己超越의 端緒를 잃어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現代 危機의 思想性은 『헤-겔』의 이른바 惡無限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現代는 한 개 辨說의 世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現代에 이르러서 實踐의 貧困을 탄식하거나와 實踐의 貧困보다는 오히려 理論의 貧困이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理論的 精神의 擁護, 이것은 人間 永遠의 課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現代가 『現實의 形而上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개의 思想을 가졌다는 말을 했거나와 오히려 그것을 가진 까닭으로 해서 사람들은 理論을 대소롭지 않게 보는 일이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깃뻛히는 것이 다름 아닌 이 理論이라고 나는 봅니다. 흔히들 理論을 집어치우라고 하지만 이것은 기실 高次의 理論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단순한 主觀또는 觀想에서 멀리 버서나 마땅합니다. 그러나 實在 및 그 世界에 대한 根源的 省察은 그것을 久遠히 싸혀 나아가지 안혀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어제 오늘 觀念論, 主知主義를 몹시 나무랍니다. 그런데 잘못이기는 해도 觀念論者 또는 主知主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암만해도 우리들 사람 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思惟가 맞기어진 것은 진실로 한 개 宿命이라고 보아서 무방합니다.

思惟는 흔히 現實을 떠나는 때가 있고 現實을 거죽 고자질하는 때조차도 있습니다. 이것은 現實과 함께 思惟 그 자신을 위해서도 한 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思惟의 이 虛構性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現實이 그 자신 한 개의 流動이요 生成인 까닭에 思惟는 어쩔 수 없이 現實을 부단히 붙잡으면서 부단히 노해주지 아니치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思惟의 現實에 대한 誤差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대로라도 이러케 밖에 더 現實을 把握할 길이 없는 한에서 우리들은 오히려 思惟의 『수고』를 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思惟는 전연히 現實에서 떠나 이른바 主觀의 妄執 또는 觀念의 遊戲에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思惟의 現實에 대한 虛構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思惟의 이 誤差와 虛構는 다름 아닌 人間의 有限性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人間이 본대 有限的 存在인 한에서 그 思惟만이 無限하고 圓融할 까닭이 있습니까? 思惟가 有限한 人間의 思惟인 까닭으로 해서 때로 심한 過誤에 떨어지는 일이 잇거니와, 思惟의 有限性은 그것이 도로어 思惟의 絕對性에 이르는 出發이요 前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現代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 思惟의 再建이라고 나는 봅니다. 理論的 精神의 擁護. 現代는 일허진 理性의 □□에 있어서 자기를 저 世紀的인 死滅에서 救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또 觀念論에 돌아가는군. 글세 現實은 어떻게 하고. 思惟니 理論이니 또 觀念이거든. 그참 『解釋』만 알고 『變革』은 모르거든. -이러케 나무라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觀念에 대한 現實 理論에 대한 實踐을 몹시 내어 세우는 오늘의 『運動의 論理』마저 한 개의 思惟態度로 봅니다. 現實이 觀念形態를 規定한다고 하지마는 見解 자신 어느 意味의 觀念形態가 아니겠습니까. 現實이 觀念을 制約하는 것과 함께 觀念이 現實을 制約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나는 오늘의 저 『運動의 論理』의 巨大한 沉潤에 있어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앞에서 現代의 文化가 심한 混亂 속에 빠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現代에 있어서의 文化의 危機는 이제 바야흐로 어떤 모양의 徵候를 보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現代 文化의 全領野를 通하여 不安, 動搖의 소리가 依然히 조금도 낮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文化의 危機를 救하기 위하여 만흔 見解, 만흔 主張을 버려 놉니다. 그러나 떠들면 떠들수록 그것이 한 개 높아가는 아우성이 되어 갈수록 動亂은 크고 깊어갈 따름입니다.